

COVID-19 이후 글로벌 경기 동향

황 준 호* (국민연금연구원)

Abstract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강도 높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 확산지역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 공급체계가 마비되고 세계 실물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고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변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 동향을 살펴보고 세계 주요국의 경제 대응책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충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들어가며

2020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Corona virus Disease-19: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유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치사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염병 확산 최고 단계인 팬데믹(Pandemic) 상태를 선언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감염 지역 봉쇄(Lockdown), 사회활동 제한(Social distancing)과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전염병 확산은 통제되는 모습이나 경제활동이 대거 중단(Shutdown)되면서 세계 경기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확대된 2020년 1분기와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각각 -5.0%, -9.5%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유럽과 중국도 1분기 기준 -3.9%, -6.8% 역성장하였다.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 우려로 WTI 가격이 배럴당 음(-)의 수준인 -37.63달러를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주식시장도 실물경기 악화와 경제위기 우려로 연초 대비 30% 이상 급락하였다. 또한, 위기 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 가격이 급등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여파가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 국민연금연구원 E-mail : jhwang@nps.or.kr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미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은 3월 중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같은 제로금리로 회귀하였으며 양적완화 재개, 2.2조 달러 이상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이하, ECB)은 대규모 자산매입과 대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유럽지역 내 국가들도 긴급 재정부양책을 시행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수립해 기업과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비 진작, 생계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공격적인 통화, 재정정책으로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실물경기에서의 효과는 모연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과거 금융위기와 성

격과 규모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에 내재된 시스템적 문제가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확대된 것인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동제한과 인적, 물적 봉쇄가 생산과 소비의 붕괴, 세계 공급사슬(Supply Chain)의 마비로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금융시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단기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세계 경기는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물 산업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된 현대 경제환경에서 그 충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한 세계 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실제 경제충격 규모와 심각성을 파악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주요 대응책을 정리하고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COVID-19 확산 이후 경기 여건 변화

2019년 말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감염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2020년 12월 2일 기준, 전체 감염자는 6,281만 명 이상이며 146만 명 이상이 사망

하였다. 전 세계 191개국에서 발병이 확인되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1,323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 인도와 브라질에서

〈표 1〉 코로나19 발생 현황

	감염자	사망자		감염자	사망자
미국	13,234,551	264,808	이탈리아	1,601,554	55,576
인도	9,462,809	137,621	아르헨티나	1,418,807	38,473
브라질	6,314,740	172,833	콜롬비아	1,308,376	36,584
러시아	2,322,056	40,464	멕시코	1,107,071	105,655
프랑스	2,183,275	52,371	독일	1,067,473	16,636
스페인	164,8187	45,069	폴란드	990,811	17,150
영국	162,9661	58,448	전 세계	62,810,276	1,464,618

자료: 2020년 12월 2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각각 946만 명, 631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도 누적 감염자가 수가 16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은 감염이 확산된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전염병 확산은 통제되는 모습이나 산업생산과 소비가 마비되고 실제 경제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실물경기 악화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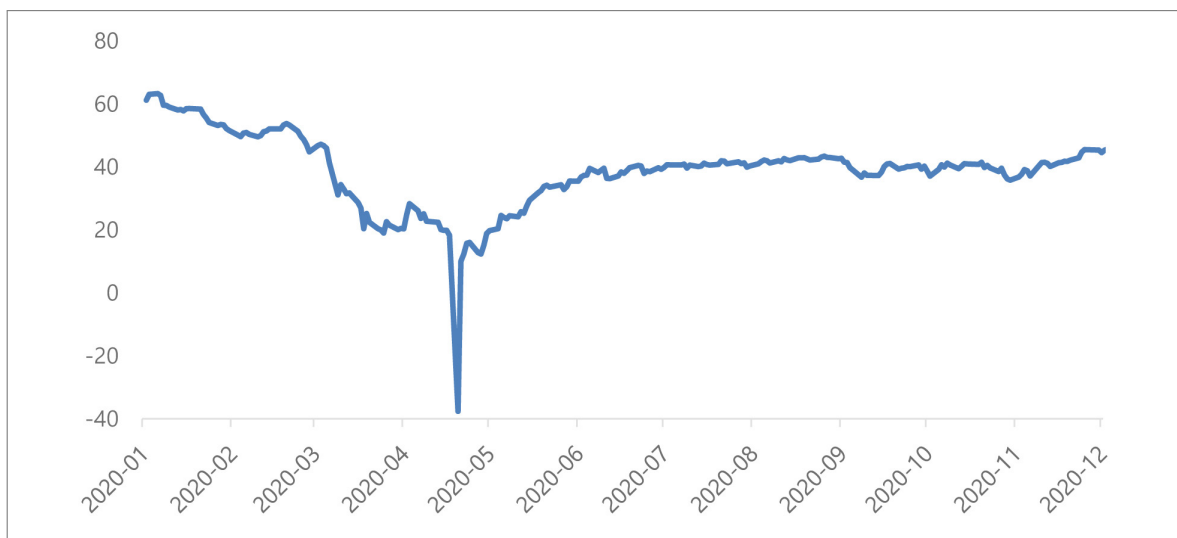
대표적인 실물경기 지표인 국제유가는 2020년 초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나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3월과 4월 중 급락하였다. 특히, 4월 20일에는 서부 텍사스 중질유(West Texas Intermediate, WTI) 가격이 배럴당 음(-)의 수준인 -37.63달러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OPEC+ 산유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 합의가 이뤄지고 중국 등 대규모 원유 소비국을 중심으로 지역 봉쇄가 해제되면서 약 40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되었으나 연초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실제 산업생산과 소비 또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2>의 전 세계 산업생산지수를 보면, 2020

년 1분기와 2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1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와 4분에게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 하락 폭은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2020년 2분기 기준, 선진국에서 -15.5%, 신흥국에서 -7.0% 하락해 선진국에서 생산 하락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산업생산의 하락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하며 선진국은 지수 수준 자체가 2009년 1분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소매판매지수 역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전 세계 소매판매지수를 보면, 2020년 1분기와 2분기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7.6%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의 소비 침체로 인해 2020년 1분기 신흥국의 하락 폭이 -12.7%를 기록해 선진국(-1.5%) 대비 소비 수준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분기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이 지난해보다 각각 -7.9%, -8.0% 낮아 소비 침체가 이어진 모습이다. 산업생산지수와 마찬가지로 2020년 하반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소비 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전 세계 소매판매 역시 전년 대비 양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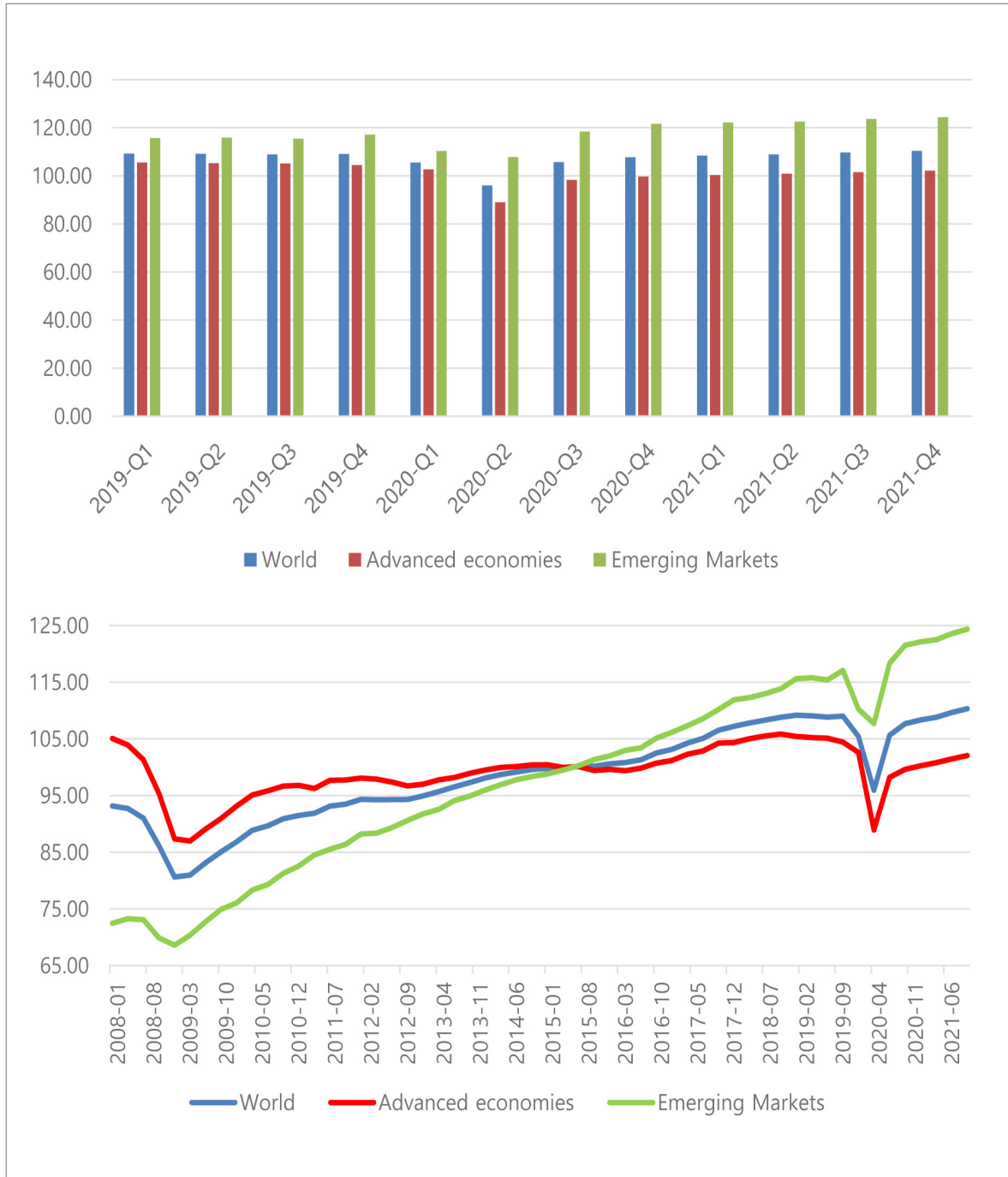
〈그림 1〉 WTI 원유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자료 이용



〈그림 2〉 2020년 산업생산 및 연도별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자료 이용

〈그림 3〉 2020년 소매판매 및 연도별 추이



자료: Global Insight 자료 이용

대표적인 경기조사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소비자기대지수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크게 낮아진 모습이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PMI 지수는 100포인트 수준이던 연초 대비 급락해 4월 말 기준 39.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기록한 34.5 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 기대지수 역시 연초 130 포인트 수준에서 4월 말 기준 85.7포인트로 하락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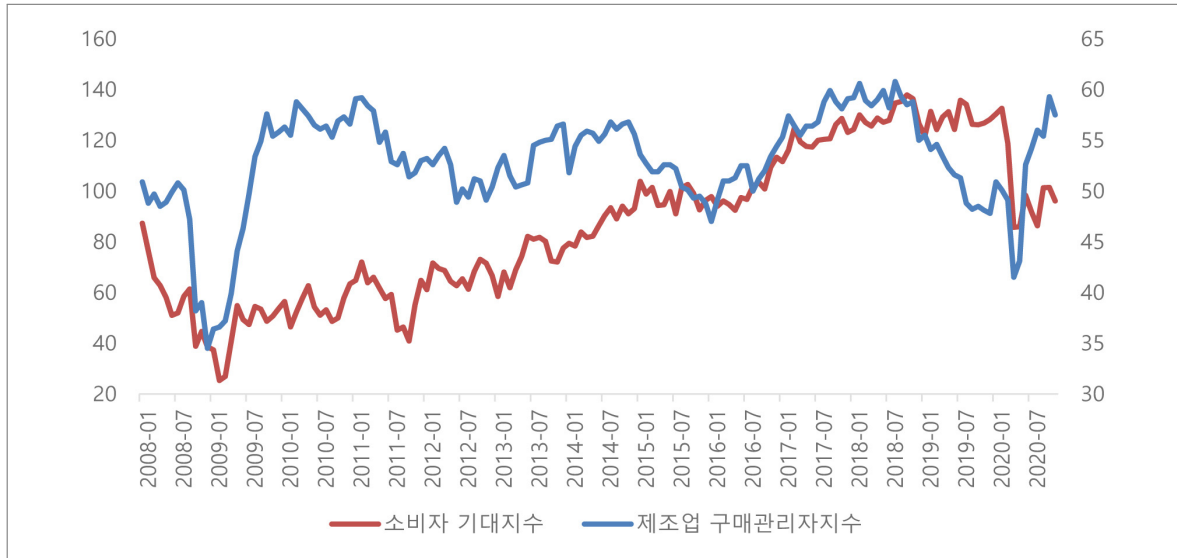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소비 부진과 국가 간 이동

등이 제한됨에 따라 실제 무역량도 급감하였다.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교역량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실물경기 악화로 각국의 경제성장률도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5.0%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2분기 GDP 성장률은 더욱 악화돼 -9.5%를 기록하였다. 특히 2분기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는 -31.4% 하락한 것으로 19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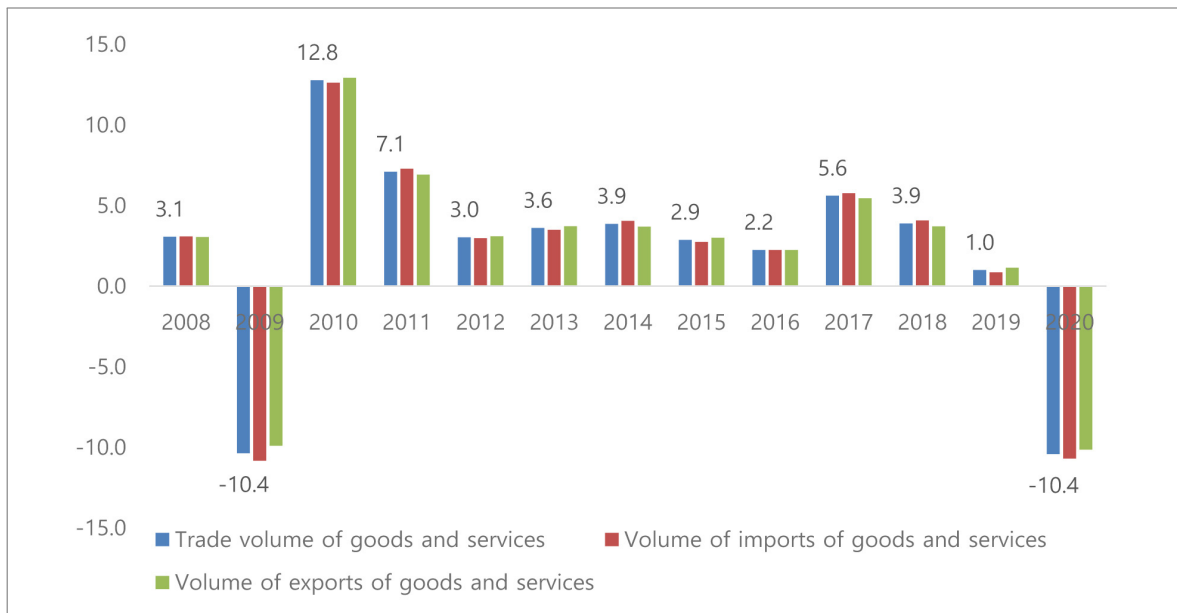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소비자 기대지수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10) 자료 이용

〈그림 5〉 세계교역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0.10) 자료 이용

분기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7.4%, 연율 기준으로는 33.1%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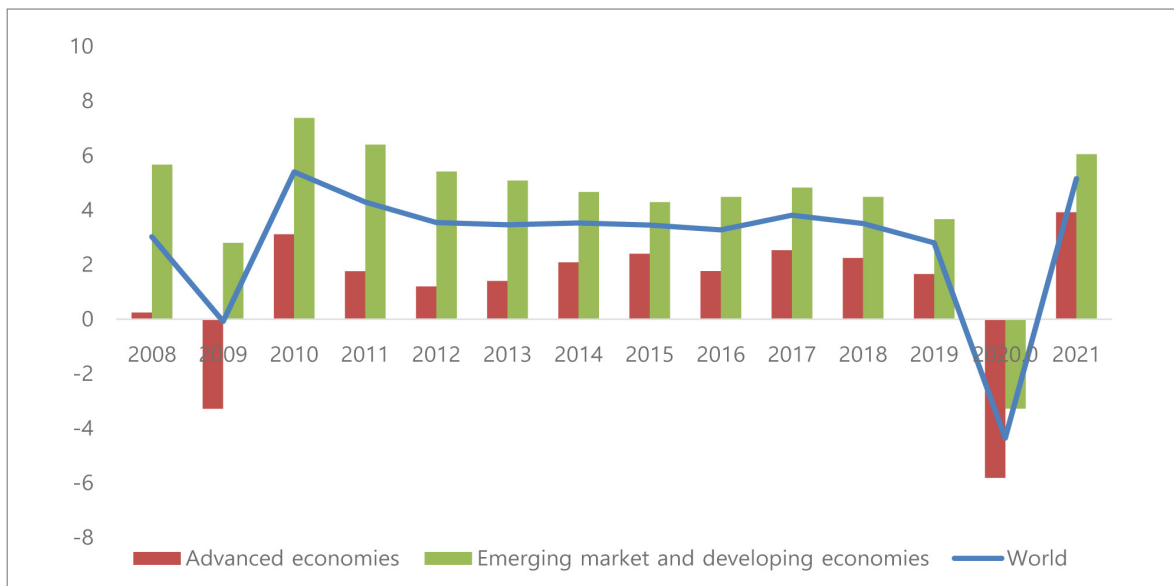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인한 봉쇄조치 완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통화정책, 그리고 직전 분기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 지역 및 국가의 GDP 성장률 전망

	2020년 GDP 전망	2021년 GDP 전망		2020년 GDP 전망	2021년 GDP 전망
세계	-4.4		한국	-1.9	2.9
선진국	-5.8	3.9	중국	1.9	8.2
신흥국	-3.3	6.0	일본	-5.3	2.3
주요 선진국(G7)	-5.9	3.8	영국	-9.8	5.9
유럽	-8.3	5.2	스페인	-12.8	7.2
유로존	-7.6	5.0	이탈리아	-10.6	5.2
미국	-4.3	3.1	독일	-6.0	4.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20.10)

〈그림 6〉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 2020.10), 2020년과 2021년 수치는 전망치

유로지역 경제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유로지역의 1분기와 2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3.6%, -12.1%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기록한 GDP 성장률(2009년 1분기, -3.1%)보다 저조하며 1995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급증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로존 내 국가들에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3분기에는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봉쇄조

치가 점차 완화돼 직전 분기 대비 1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중국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8%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빠르게 통제하면서 2분기와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1분기와 2분기 역성장, 3분기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20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1.3%, -3.2%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3분기에는 회복하여 양의 경제성장률(2.1%)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들의 2020년 3분기 GDP 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 중이며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이다. IMF는 2020년 10월 발간한 세계 경기전망에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GDP 성장률(-0.08%)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5.8%, -3.2%로 예측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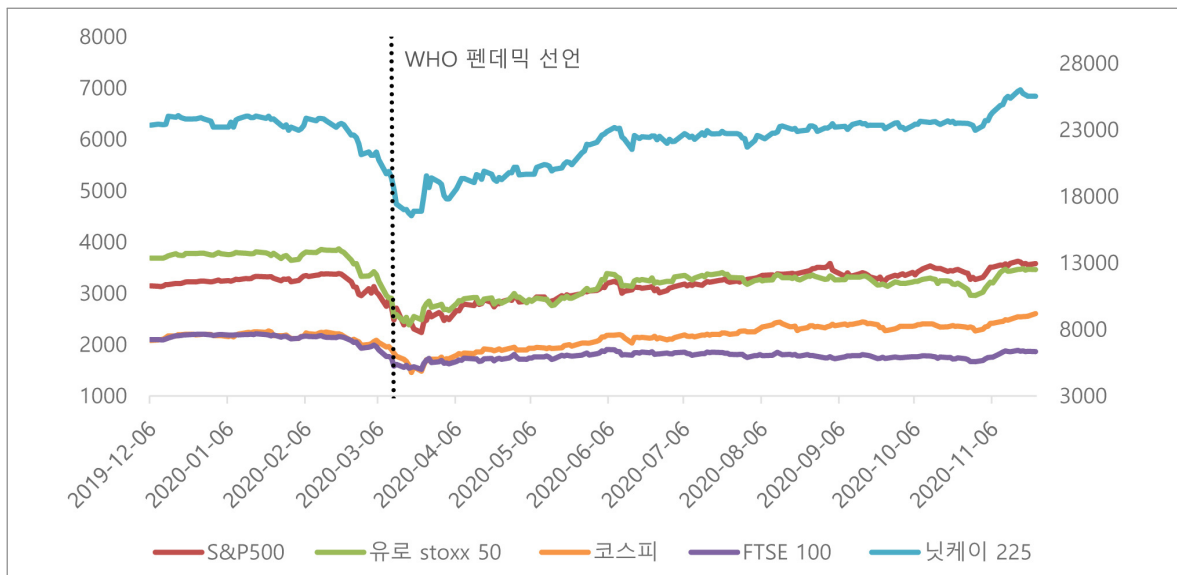
[3] COVID-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동향

코로나19의 확산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국의 실물경기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금융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던 3월 중 급락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주가지수의 연중 저점 기준 연초 대비 하락률을 계산해보면, 유로 Stocxx 50 지수의 하락 폭이 -37.1%로 가장 컸으며

S&P500과 영국의 FTSE100이 각각 -31.3%, -34.3%, 일본 닛케이225와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28.6%, -3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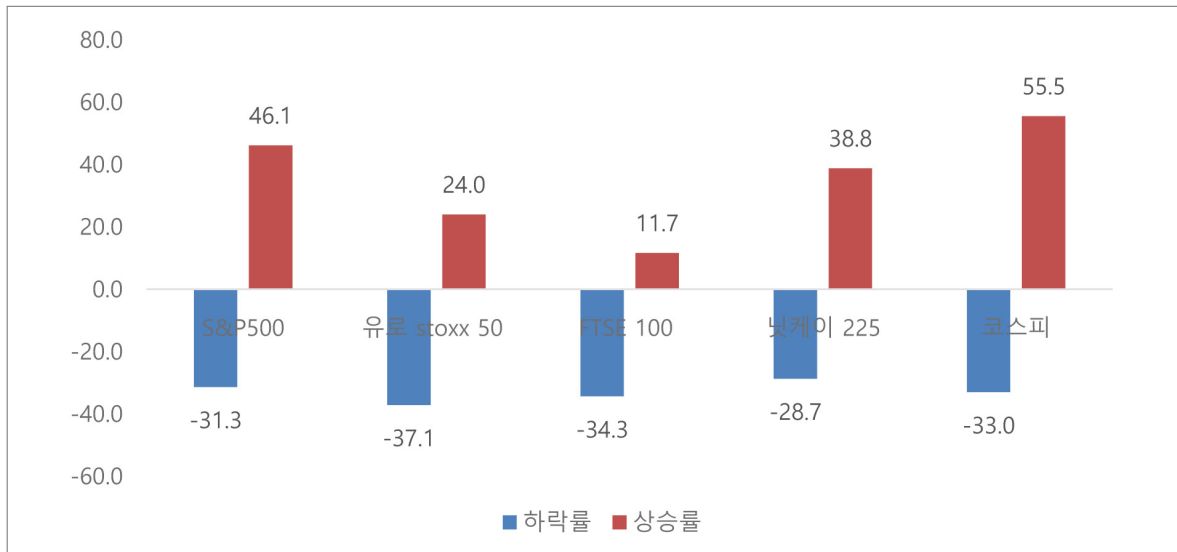
하지만 3월 중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 재정 정책이 시행되거나 관련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곧바로 반등해 하락 폭을

〈그림 7〉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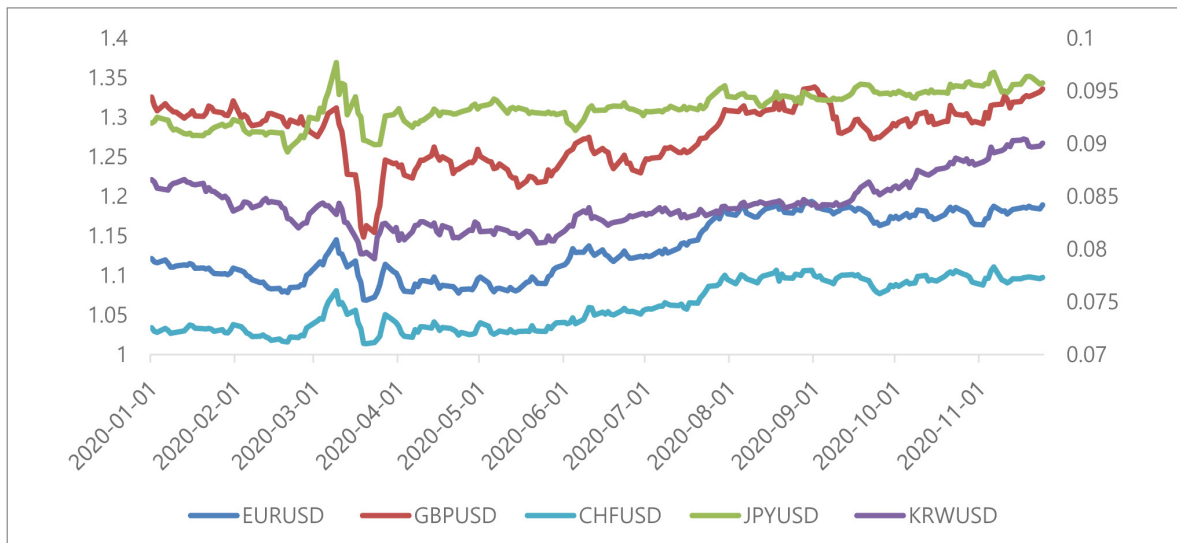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이용

〈그림 8〉 주요 주가지수 상승, 하락률



자료: Bloomberg 자료 이용

〈그림 9〉 주요 통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자료 이용

JPY/USD 환율은 단위 조정(JPYUSD FX rate *10)

회복하였다. 연 저점 대비 10월 말 기준 주가로 계산한 주가 상승률은 보면,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55.5%로 가장 높았으며 S&P500지수와 닛케이225지수도 각각 46.1%, 38.8%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

의 주가를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환율 역시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환율 추이를 보면, 주식시장의 가격이 큰 폭을 하락하기 시작한 3월 중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 통화 외에도

엔화/달러화, 스위스프랑/달러 등 선진국 통화에서도 달러 강세 후 약세가 지속되었다.

[4]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책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시작하였다. 미 연준은 3월 중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같은 제로금리로 회귀하였다. 3월 15일에는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예고하였으며 3월 23일에는 국채 등의 매입 한도를 폐지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를 개시하였다. 3월 19일에는 달러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9개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4월 9일에는 긴급 중소기업대출기구(MSLF)와 지자체 유동성 기구(MLF)를 통해 중소기업과 지방채권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급여보호프로그램(PPPLF)을 신설해 고용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대출을 실시하였다. 미 연준의 신용시장 지원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시하였던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발행시장,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와

〈표 3〉 미 연방준비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3	기준금리 인하	-50bp 기준금리 인하
3.15	기준금리 인하	-100bp 기준금리 인하, 제로금리 회귀
	양적완화 개시	7,000억 달러 규모 양적완화 개시
3.17	기업어음 매입기구 설치	기업어음 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설치
3.18	MMF 유동성 지원창구 설치	MMF 유동성 지원 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 제공
3.19	통화Swap	호주, 한국 등 9개 국가와 통화 Swap 체결
3.23	무제한 양적완화 개시	국채/MMF 매입 한도 폐지, 발행시장 기업신용기구(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PMCCF)를 통해 우량 회사를 매입하거나 대출 제공,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MCCF)를 통해 투자등급 회사채 및 ETF 매입, 자산담보부증권 대출기구(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TALF)를 통해 ABS 담보 하에 대출 제공, 자산매입대상에 상업용부동산 담보의 대출채권(Commercial Mortgage-Backed Securities, CMBS) 추가
4.9	중소기업 및 지방정부 채권 매입 및 중소기업 재정지원	긴급 중소기업대출기구(Main Street Lending Facility, MSLF)를 통해 중소기업 채권 매입
		지자체 유동성 기구(Municipal Liquidity Facility, MLF)를 통해 지방정부 채권 매입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 기구(Paycheck Protection Program Liquidity Facility, PPPLF)를 설치하고 일시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지원

같은 회사채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영국중앙은행은 3월 11일 금리를 0.2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3월 19일에는 기준금리를 0.10%로 추가 인하하고 자산매입 규모와 대상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4월 9일에는 영국정부에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을 하는 단기융자제도(Ways and Means Facility)를 실시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3월 12일과 18일 1,200억 유로 수준의 양적완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긴급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미 0%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ECB는 자산매입 위주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3월 12일 ECB는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1,200억 유로의 추가 매입을 예고하였으며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장기대출 프로그램 실시하였다. 3월 18일에는 약 7,500억 유로의 긴급자산 매입프로그램(PEPP)을 신규로 도입하였

으며 매입대상도 정부, 국제기구, 회사채, CP 등으로 확대하였다.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자산매입 확대와 금리 인하를 실시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2월 3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7일물 입찰 금리를 2.4%로 기존 대비 0.1%p 인하하였으며 2월 17일에는 6개월에서 1년 기간 금리인 MLF 대출금리도 0.1%p 인하하였다. 3월 13일에는 중소형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50~100bp 인하해 5,5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것을 예고하였다. 3월 30일에는 RP 금리를 20bp 추가 인하하였으며 4월 30일에는 실질적인 기준금리인 대출금리(LPR)도 만기에 따라 10~20bp 인하를 결정하였다.

한국은행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다. 3월 19일에는 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수준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통화시장 경색에

〈표 4〉 영국중앙은행 주요 통화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11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해 기존 0.75%에서 0.25%로 설정
	자산매입 프로그램 실시	자산매입 프로그램(Asset Purchase Facility, APF)를 도입해 국채 및 회사채 매입
	중소기업 대출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 대출지원제도(Term Funding Scheme for SME, TFSME)를 도입해 중소기업 대출은행에 자금 제공
3.19	기준금리 재인하	기준금리를 -15bp 추가 인하해 기존 0.25%에서 0.10%로 조정
	보유채권 규모 확대	보유채권의 규모를 6,450억 파운드 규모로 확대하고 비금융회사채까지 대상을 확대
4.9	단기융자제도 실시	단기융자제도(Ways and Means Facility, WAMF)를 통해 영국정부에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을 실시

〈표 5〉 유럽중앙은행 주요 통화 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12	자산매입 프로그램 실시	자산매입 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 APP) 실시
	저금리 장기대출	장기대출 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을 통해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대출 실시
3.18	긴급 매입 프로그램 실시	긴급 매입 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PEPP)을 통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



〈표 6〉 중국인민은행 주요 통화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2.3	RP 금리 인하	7일, 14일물 RP 금리를 10bp 인하
2.17	MLF 대출금리 인하	중기유동성지원기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 대출금리를 10bp 인하
3.13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율(지준율) 50~100bp 인하
3.30	RP 금리 추가 인하	7일 RP 금리 추가 20bp 인하
4.20	대출금리 인하	대출금리(Loan Prime Rate, LPR)을 만기에 따라 10~20bp 인하

〈표 7〉 한국은행 주요 통화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16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0%p 인하
3.19	한미 통화Swap 체결	600억 달러 규모 한미 양자간 통화SWAP 계약 체결
3월 중	채권 매입	증권사 RP, 국고채 매입
4.16	대출 지원	민간기업 회사채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 실시
5.28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인하

〈표 8〉 미국의 주요 재정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6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원	백신 및 의료 지원, 소상공인 대출 등을 위해 83억 달러 수준의 재정 지원을 의결
3.13	국가비상사태 선포	주 정부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상환 유예와 국가 전략 비축유를 최대한 확보
3.18	2차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검사, 실업보험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
3.27	3차 경기 부양책	가계,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약 2.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
4.24	3차 경기 부양책 보완	4,8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이며 병원,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재원 보충

대비하였으며 RP, 국고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였다. 또한, 5월 28일에는 기준금리를 0.50%로 0.25%p 추가 인하하였다.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 외에도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미국 의회는 3월 6일 약 83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였다. 3월 13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 주 정부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상환 유예와 전략적 원유 비축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3월 18일에는 가계, 취약계층과 근로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코로나 재정부양책을 승인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가계, 근로자, 기업, 피해산업, 주 정부 등을 지원하는 약 2.2조 달러 규모의 3차 재정부양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3차 부양책의 규모는 2018년 미국 전체 GDP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로

〈표 9〉 유럽의 주요 재정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10	코로나19 대응 기금 마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로존 합동으로 약 250억 유로 수준의 기금을 마련
3.11	이탈리아, 영국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탈리아는 약 250억 유로, 영국은 약 300억 파운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예고
3.17	프랑스, 스페인 경기부양책 발표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3,450억 유로, 2,000억 유로 규모의 재정패키지를 발표
3.23	독일, 경기부양책 발표	약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결정
4.9	경기 부양 패키지 합의	유로존 단위로 5천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합의

〈표 10〉 중국의 주요 재정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3	소비 진작책 발표	일부 소비품에 대한 세금 조정, 소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비 진작
3.4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국 11개 성에서 25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발표
3.13	추가 소비 진작책	지방 정부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발행
4.17 4.20	인프라 투자 계획	정보 네트워크 기반 산업으로 인프라 산업의 정의를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 확대를 예고
5.22	경기 부양책 발표	GDP 대비 재정 적자확대, 코로나 특별채권 및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등을 통해 11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의료시설 외에도 기업대출, 실업보험 혜택 확대, 개인 현금지급 등이 포함되었다. 4월에는 4,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승인해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병원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 역시 250억 유로의 EU 기금을 마련하고 국가별로 채무상환 유예, 기업에 자금 지원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이탈리아는 250억 유로, 독일은 7,500억 유로 수준의 경기 부양책 패키지를 승인하였으며 유로존 차원에서도 5천억 유로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합의하였다.

중국의 재정정책은 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지원 정책과 대규모 산업투자에 집중되었다. 3월 3일 중국 정부는 일부 소비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를 조정해 내수 둔화에 대응하였으며 3월 4일에는 약 25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4월에는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 산업, 고속철도, 특고압 등 신인프라 7대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였으며 5월에는 약 1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11.7조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관련 산업에 지원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개별 국민에게 현금 지급, 소상공인 세제 혜택,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 4월과 5월에는 1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개별 가구에 현금지급을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주요 재정, 통화 정책을 살펴본 결과, 주로 기준금리 인하,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실시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시장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고 세제 개편, 현금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표 11〉 한국의 주요 재정정책

발표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3.19	경영자금지원, 금융패키지 시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50조 이상 경영자금지원 금융 패키지를 실시
3.24	기업 자금지원 확대 및 채권 매입	중소, 중견 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채권 매입을 실시
3.30	취약계층 생계지원	경제 취약계층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재정 지원
4.1	코로나19 관련 업종 지원	코로나19 관련 업종에 세제 혜택
4.30	전국민 자금 지원	12조 규모의 전국민 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승인
5.7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디지털 기반 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가계 및 기업 부실화 방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향후 각국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감염병 확산에서 촉발된 것으로 백신, 치료제 등의 개발로 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정,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장기화됐을 경우, 재정적자 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부실화 우려가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 언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질병 확산과 경제 위기 공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이며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10월 기준, IMF가 전망한 2020년 세계 GDP 성장률은 -4.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0.08%)보다 낮은 수준이며 대공황 이래 최초로 신흥국과 선진국이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 역시 크게 변동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3월 중 미국 등 주요 5개국의 주가지수는 약 30% 이상 급락하였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 주요 통화 대비 달러 환율이 급등하였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자 매우 공격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여 제로금리로 회귀하였으며 무제한 양적완화를 다시 시작하였다. 유럽, 중국,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자산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봉쇄조치 완화로 주요국의 실물경기 지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GDP 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실물경기 지표는 2020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모습이며 주요국의 주가지수 또한 3월 중 반등해 전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하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감염병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세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우리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글로벌 가치사슬과 유통망이 외생적 충격으로 붕괴될 수 있으며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에 취약점이 존재함을 보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외생적 충격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넓게는 세계화와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국제 경제적 논의까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각국의 경제적 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확장적 통화, 재정정책과 같은 대응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고 재정 부채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의 뉴노멀(초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등)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발생할 위기에 대한 재정,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혜진, 2020,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 대응 및 시사점, KDB미래전략연구소
- 박창균, 2002, 한국 금융부문의 장기추세와 코로나 19, 자본시장연구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0,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통화정책 공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병윤, 2020,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2020, 코로나19 사태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 금융브리프, 29권, 13호
- 한국은행, 2020, 최근 미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동향분석
-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2020.04)
-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2020.10)
- PWC,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별 대응 정책